

중국 투자 뉴스



금주 시장 정보

[포커스]	오프라인으로 유통하는 中 소비자	1
[산업/정책]	2015년 1분기 경제실적으로 살펴보는 중국의 향방	6
	「장강중류도시군발전계획」 통과, 중국 신형도시화 신호탄	10
[상품/시장]	꾸준히 증가하는 중국 수입식품 시장, '품질관리'로 승부해야	13
	한국 대형마트, 알리바바 '티몰 국제'에 진출한다	20
	황금기를 맞이할 중국의 중·고가 아동복 시장	26
[통상/투자]	52개국 모집한 AIIB, 아시아 인프라투자 활성화 촉매제될까	30
	中, 통관 일체화 통해 '일대일로' 정책 박차 가한다	36

특파원 칼럼

[월드리포트]	첫 돌 갓 지난 아기에게 매독 검사, 왜?	40
---------	-------------------------	-------	----

추천 보고서

	한중 간 상호 수입침투율 특징과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43
	중국 통화정책 방향 - 경기둔화에 맞선 방어적조치 시행(하나금융연구소)	44

투자진출 A to Z

[양로보조금]	산동성 독생자녀 보유자 퇴직 시 양로보조금 지급 여부	45
---------	-------------------------------	-------	----

구매정보

TR 아크릴, 한국 옷감 순면, PEACH SKIN	48
중국 JD.com 국제관 입주기업 모집	49

행사 및 기타 정보 안내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 및 튜멘지역 수출상담회 참가안내	50
[카페 홍보]	중국 비즈니스 포럼	53



<http://www.globalwindow.org>

<http://www.kotra.co.kr>

<http://www.ois.go.kr>

<http://www.buykorea.org>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베이징 : (86-10) 6410-6162 ● 상하이 : (86-21) 5108-8771
- 칭다오 : (86-532) 8388-7931 ● 광저우 : (86-20) 2208-1600
- 다 련 : (86-411) 8253-0051 ● 시 안 : (86-29) 8883-1060
- 청 두 : (86-28) 8672-3501
- IP-China Desk(중국 지적권 보호 데스크): 각 센터 내 설치

금주 시장 정보

[포커스] 오프라인으로 유턴하는 中 소비자

- 오프라인 쇼핑 선호비중, 전년도 18%에서 26%로 상승 -
- O2O 플랫폼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논스톱’소비가 대세 -
- 온·오프라인 매장의 차별적 가치를 강조하고 장점을 살려야 -

작성자: 베이징무역관 김성애(jinshengai@kotra.or.kr)



자료원: 상도(商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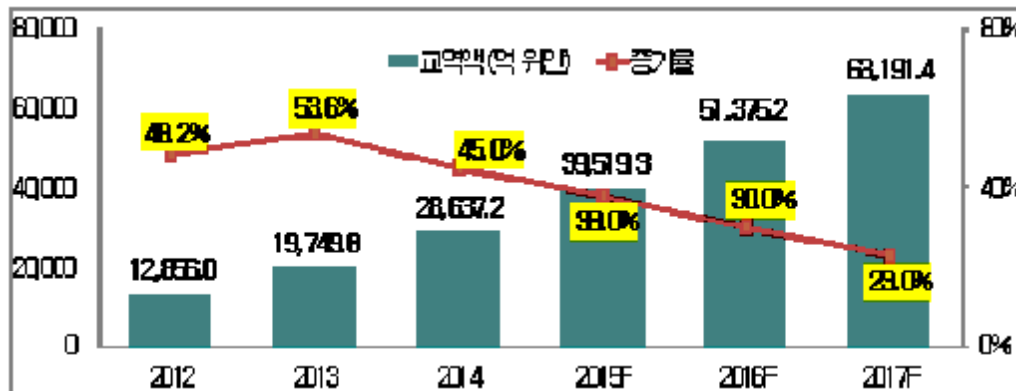
□ 중국 오프라인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 증가 추세

- 최근 중국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조짐을 보여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음. [글로벌 시장컨설팅기관 액센추어(Accenture)]
 - 액센추어가 2014년 말 진행한 소비자 조사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소비를 늘릴 계획’을 밝힌 응답자 비중이 26%에 달함.
 - 이는 1년 전 조사결과에서 보여준 18%보다 8%p 상승한 수치
- 중국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편리’면에서도 온라인 쇼핑에 뒤처지지 않다고 평가
 - 조사결과에 따르면 93%의 응답자가 오프라인 매장이 ‘아주 편리’하다고 답했음.
 - 이에 반해 온라인 쇼핑에 ‘아주 편리’하다는 평가를 준 응답자 비중이 75%, 모바일 쇼핑은 더 낮은 61%
 - 액센추어 차이나의 관계자는 상기 조사결과는 중국 유통업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무게감을 잘 보여주었다며 오프라인 매장의 중요성을 강조

□ 중국 온라인시장, 성장속도 늦춰져

-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는 반면, 중국 소비자들에게 있어 온라인 쇼핑의 매력이 퇴색하고 있음.
 - 이번 조사에 응한 소비자 중 68%는 추후 온라인에서의 쇼핑을 늘릴 계획을 밝혔음.
 - 그러나 이는 전년도의 76%보다 8%p 하락한 수치
- 중국 온라인시장의 교역액과 향후 몇 년의 발전추세를 살펴보면 교역액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그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중국 현지 전자상거래 연구기관인 EnfoDesk(易觀知庫)는 2014년 중국 온라인시장 교역액 규모는 2조 8637억 위안에 달할 것이며 2015년에는 4조 위안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음.
 - 2016년에는 5조 위안을 돌파하고 2017년에는 6조 위안 이상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증가율은 2013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38%로 하락할 것이고 2017년에는 2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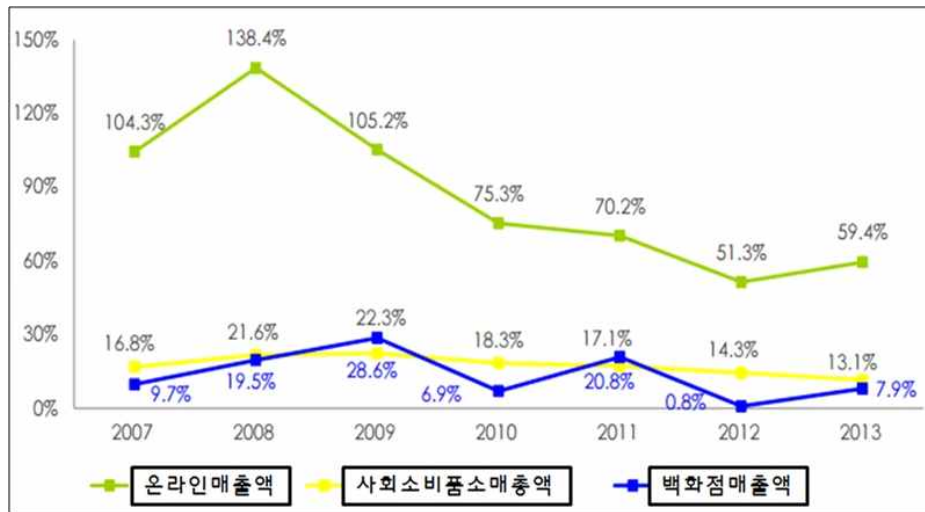
중국 온라인시장 교역액 추이



자료원: EnfoDesk

- 중국의 온라인매출액·사회소비품소매총액·백화점매출액 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2012년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통 유통채널인 백화점 매출액이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었음.
 - 2012년 1% 이하로 추락한 백화점의 매출액은 2013년 다시 7.9%로 반등하며 중국 오프라인 매장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음.

중국 온라인매출액·사회소비품소매총액·백화점매출액 증가율 비교



자료원: i R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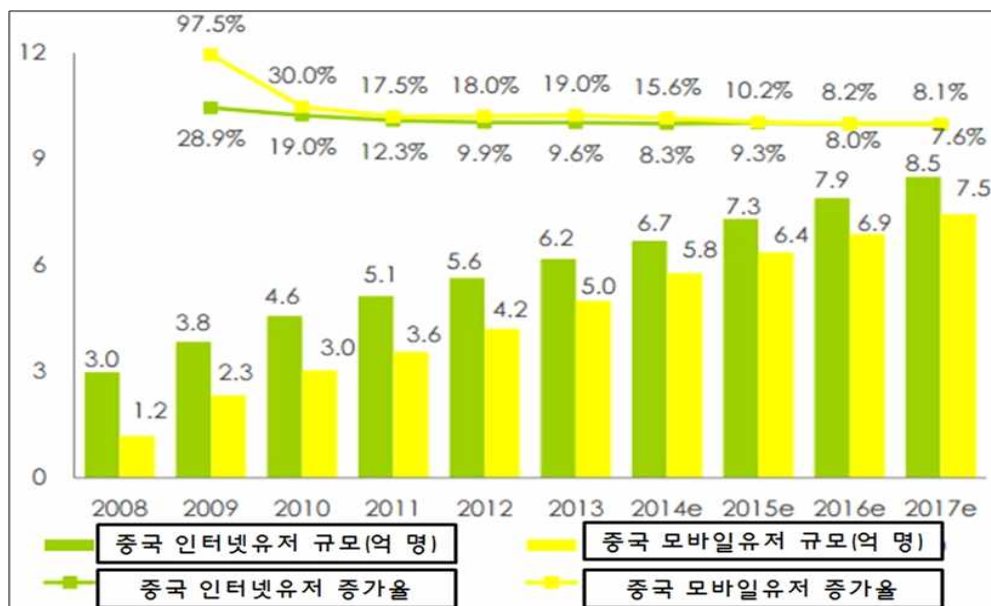
□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오가는 '논스톱 소비자'들

-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유통채널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를 잘 읽어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중국 온라인시장 교역액 성장속도 둔화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온라인 쇼핑은 비교적 간편한데다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만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없음.
 -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쇼핑 체험, 쇼핑 환경 등은 모두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
 - 이런 유통채널 다양화의 추세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최근 대세를 이루는 '논스톱 소비자'
- 중국 유통업계 인사들은 중국의 '논스톱 소비자'들에 포커스를 맞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른 바 '논스톱 소비자'(non stop consumer)란 스마트폰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자유자재로 온·오프라인 매장을 넘나들며 소비를 즐기는 소비자들을 가리키는 말
 - O2O가 활용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APP로 매장을 검색한 후 상품을 비교하고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방식이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음.
- 소비자들이 O2O 활용도를 높인 데는 중국 인터넷과 모바일 유저규모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

- 2014년 중국 인터넷 유저는 6억 명을 돌파, 2015년에는 7억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모바일 유저는 2008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선 수준이었는데 2014년에는 5억 8천명을 돌파하여 2015년에는 6억 4천 명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국 모바일 유저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바일 기기로 상품 정보, 가격 등을 비교하며 쇼핑을 즐기는 ‘오프라인 유턴’의 선두주자들로 활약하고 있음.

중국 인터넷·모바일 유저규모 및 증가율 추이



자료원: i Rsearch

□ 시사점: 논스톱 소비 추세 맞춰 진화해야

- 우리 기업들은 온·오프라인 거래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O2O 플랫폼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차별적 가치를 살리는 형태로 진화해야 함.
-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수요와 소비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기반을 다져야 함.
- APP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플랫폼 상 연결성을 강화해야 함.
- 특히 젊은 소비층을 겨냥하여 다양한 루트로 상품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구매의 장점과 사이즈와 색상 교환, 수선 서비스 이용 등 오프라인 구매의 장점을 결합해야 함.
 -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 매장과 공존하는 유통채널이지 온라인에 의해 대체될 수 없음.
 - 온라인 쇼핑몰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구매 전에 실물을 직접 볼 수 없고 구매 후에도 중국에서는 3일 이상을 기다려야 제품을 받을 수 있음.
 -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임.
 - 소비자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과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인트

-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 배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도 바람직함.
 -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픽업 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강화해야 함.

자료원: 중국잡지 〈판매·관리(銷□與管理)〉, EnfoDesk(易觀知庫), iRsearch, 엑센추어(Accenture) 등 종합

[산업/정책] 2015 중국 첫 번째 분기 경제 성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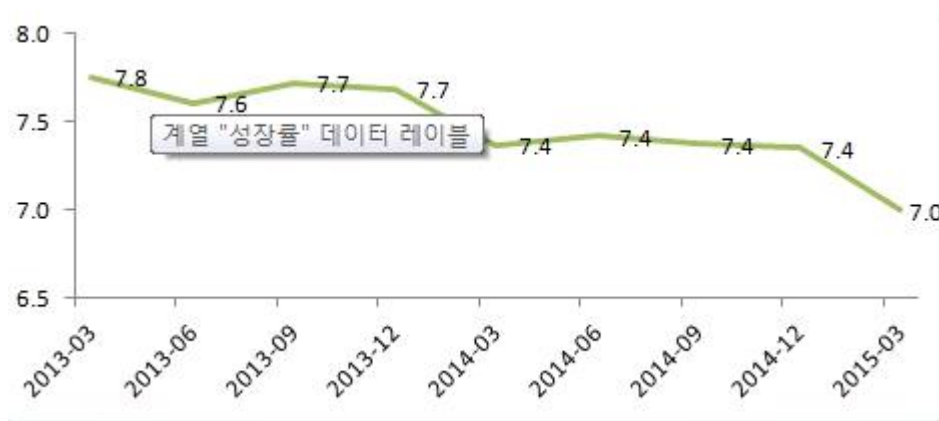
- 1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이 강하게 작용 -
-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경제성장을 사수를 위한 내수 진작 조치들을 강화할 전망 -

작성자: 상하이무역관 강민주(minzhu337@kotra.or.kr)

□ 1분기 주요 경제지표별 실적

- (성장지수) 경제성장을 7%, 6년 만에 최저 기록
 - 중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올해 목표인 7.0%에는 부합하였으나 09년 1분기(6.6%)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산업별로는 1차 산업 3.2%, 2차 산업 6.4%, 3차 산업 7.9% 성장하며 2,3차 산업의 경제 성장 견인세 지속
 - * [참고] 1분기 3차 산업 성장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51.6%
 -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대비 0.2% 증가한 50.1%를 보이며 확장구간인 50% 이상에 재진입함

중국 분기별 GDP 성장률 비교표(201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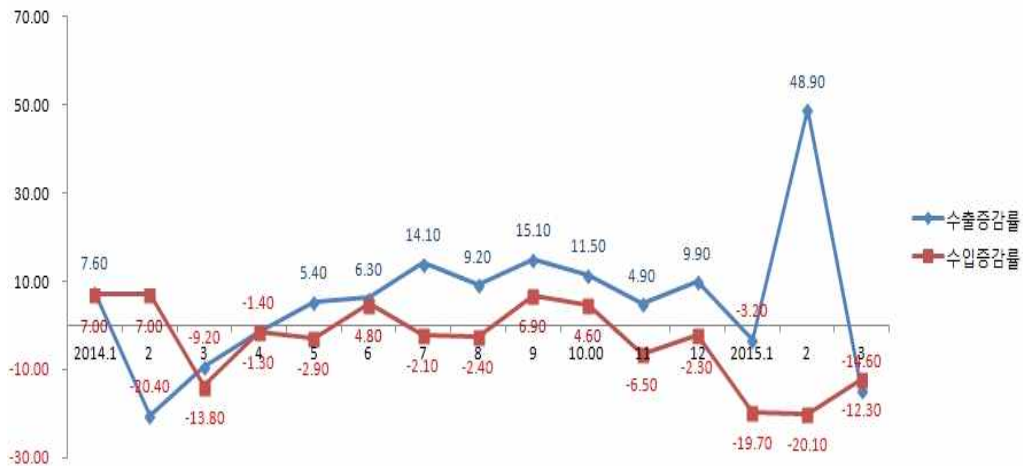
자료 : 중국해관통계 정리

- (물가지수) 대부분의 물가지수 미온적인 증가세 시현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며 안정을 유지했으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4.6% 하락하며 시장 전망치인 4.8% 감소보다 상회
 - 소매판매액의 경우 동기 대비 10.6% 증가하며 전망치인 10.9%를 밑돌았고 도시에 비해 농촌이 1.2% 높은 11.6%의 증가세를 보임

○ (무역지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기저효과

- 1분기 수출 실적은 4.9% 증가한 3조 1493억 위안, 수입은 17.3%나 감소한 2조 3940억 위안을 기록하며 전체 무역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
- 3월의 경우 2월 춘절 소비 상승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수출입 모두 전월 대비 각각 14.6%, 12.3%의 큰 하락폭을 보임

중국 월별 수출입 증감률 비교표(2014~2015.3)



자료 : 중국해관통계 정리

○ (금융지수)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7조 7511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3.5% 증가함
- 부동산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은 8.5% 증가세를 보였으나 신규 주택 개발 면적은 20.9% 감소함. - 개발 기업으로 유입된 자금 역시 2.9% 하락하여 2조 7892억 위안으로 집계됨

[2015년 1분기 중국 경제지표별 실적]

구분	지수	2014. 1분기	10월	11월	12월	2015. 1월	2월	3월	1분기
성장지수	GDP(%)	7.4	-	-		-	-	-	
	PMI(%)	50.30	50.80	50.30	50.10	49.80	49.90	50.10	50.10
물가지수	CPI(%)	2.40	1.60	1.40	1.50	0.80	1.40	1.40	1.20
	PPI(%)	△2.3	△2.2	△2.7	△3.3	△4.3	△4.8	△4.6	△4.6
무역지수	수출 금액 (조 위안)	3.00	1.27	1.30	1.40	1.23	1.04	0.89	3.15
	증가율(%)	△6.1	0.99	4.9	9.9	△3.20	48.90	△14.6	4.9

	수입	금액 (조 위안)	2.90	9.99	0.97	1.09	0.86	0.67	0.87	2.39
		증가율(%)	△1.2	0.3	△0.4	△2.3	△19.7 0	△20.1 0	△12.3	△17.3
	무역수지 (조 위안)		0.96	0.28	0.33	0.30	0.37	0.74	0.01	0.76
금융 지수	M2(%)		-	12.6	12.3	12.2	10.8	12.5	11.6	-
	신규대출 (조 위안)		-	0.55	0.85	0.70	1.47	1.02	1.12	-
	고정자산투자(%)		17.6	15.9	15.8	15.7	-	13.9		
	FDI(억 위안)		1,941	526.2	637.8	818.7	855.3	526.6		

* 주 : M2 및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누계 증감률을 의미

*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 국가별 수출 추이

- 중국의 상위 10위 수출국을 기준으로 2015년 1월 미국과 일부 ASEAN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출이 감소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2월의 경우 10개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함
-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경기의 점진적 호조로 2015년 2월 기준 대미 수출은 동기 대비 48.5% 증가함
- 싱가포르, 베트남 등 ASEAN 국가와 독일, 영국 등 EU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1분기 중국 수출 증가를 견인
- 계속되는 엔저에 대비한 중국 위안화 절하 조치로 대일 수출은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으며 대한 수출 역시 잠시 주춤하였던 1월과 달리 동기 대비 27.2%의 증가함

[최근 중국의 국가별 수출 증가율]

단위 : %

국가	2015.1~2 누계 (백만 달러)	10 월	11 월	12 월	2015.1 월	2 월
전체	369,116	11.6	4.7	9.3	△3.4	48.1
미국	64,782	10.9	2.6	9.9	4.8	48.5
홍콩	42,434	23.7	1.0	7.9	△11.1	1.3

일본	22,659	△7.8	△4.9	△7.0	△20.4	23.6
한국	15,733	13.8	10.5	31.0	△9.9	27.2
독일	12,180	0.8	0.5	3.4	△2.6	36.3
인도	9,568	18.1	25.1	20.1	5.1	96.6
네덜란드	10,082	0.0	3.2	△2.4	△5.4	22.1
영국	10,001	△0.3	4.8	2.0	6.8	67.7
싱가포르	9,461	3.0	8.5	28.6	22.4	93.6
베트남	4,014	47.1	52.6	46.6	45.8	50.5

주 : 국가순은 2015년 2월 월별 수출액 상위 10개국 기준

자료원 : KITA

□ 종합 평가 및 전망

- 중국의 1분기 수출은 춘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변동성이 심하다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2, 3월 수출의 급증·급락은 춘절을 전후로 나타난 쏠림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2014년 2월 수출의 급락(-20.40%)으로 인한 기저효과의 영향을 배재할 수 없으며 2분기에 들어서며 감소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가 가져오는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주문량 감소, 역내 생산비용 증가 및 전통 제조업 위기 등도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은 경제성장을 사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기 때문에 2분기에도 7.0%대의 성장을 유지를 위한 내수 진작 정책을 강화할 전망
 - 2분기에도 고속철도, 수리시설 등 기초 인프라 건설, 신형도시화 추진,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확대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내수의 점진적 회복 기대
 - 단 경제개혁을 앞세운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급 과잉된 제조업에 대한 투자 위축이 예상됨
- 1분기에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 조치 등 주민 소득 수준의 꾸준한 향상이 새로운 소비 수요로 이어지게 될 경우 2분기 소매판매 증가폭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자료원 : 중국해관

[산업/정책] 「장강중류도시군발전계획」 통과, 중국 신형도시화 앞당길 신호탄으로 작용할까

- ‘후베이-후난-장시’를 통합한 중부굴기정책 대대적 추진 -
- 교통 및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작성자: 상하이무역관 강민주(minzhu337@kotra.or.kr)

□ 중서부지역 개혁개방의 중심, 장강중류도시군발전계획

- 2015년 4월 5일 리커창 총리가 장강중류도시군발전계획(이하 계획)을 정식으로 승인함에 따라 화중 지역 신형도시화의 본격적인 추진에 계기를 마련함.
-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 추진 아래 최초의 범(汎)구역도시군계획의 탄생이자 중서부 지역 경제의 전면적인 개혁개방(중부굴기) 사업의 핵심으로 평가됨.
- 향후 교통, 건설 등 기초인프라 투자 규모가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 자본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
- 화중지역이 갖고 있는 교통 허브로서의 지리적 우위를 극대화해 연해지역의 경제 개혁개방 성과를 내륙지역으로 이끌어가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장강·주강삼각주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 경제구

- 중삼각 지역으로도 불리는 장강중류도시군은 ‘우한도시권(후베이), 창주탄도시권(후난), 포양후도시권(장시) 및 인근지역을 포함하는 거대 도시권으로 장강상강주, 주강삼각주, 징진지(징진지)와 함께 중국의 4대 신형도시군으로 분류됨.
- 창주탄(长株潭)은 후난성의 대표 도시인 창사(长沙), 주저우(株洲), 상탄(湘潭)을 의미하며, 포양후(鄱阳湖)은 중국 최대 염수호로서 장시성 신형도시화를 선도하는 지역임.
- 그동안 정치·지리적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한과 창사의 그늘에 가려졌던 장시성 난창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화중지역 신형도시화의 핵심지역으로 자리잡기 위해 기존에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양후생태도시권계획’ 및 ‘난창대도시계획’과의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특히 중삼각 지역 중 생태도시권 특성화 전략을 내세우며 타 2개 지역과 차별화되는 기능을 가져갈 계획임.

중삼각(中三角) 지역 개황

영문명칭	City Cluster in the Middle Reaches of the Yangtze River	별칭	中三角
포함지역	후베이, 후난, 장시	대표도시	우한, 창사, 난창
인구	1 억 1000 만 명	면적	31 만 7000 km ²
GDP(2014년)	4 조 5000 억 위안	평균 GDP 성장률	9.6% (2014년)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 장강중류도시군발전계획 탄생 배경

○ 1단계

- 2011년 10월 중국국가공정원(中国工程院,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분야 최고 학술기구) 쉬광디(徐匡迪) 명예주석, 창저우지(长周济) 원장 등 40여 명의 연구원이 모여 ‘중국특색도시화발전전략연구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
- 당시 국가공정원에서는 “중국의 도시 발전사업은 도시간 경쟁을 유발하거나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도시군 단위로 연합해 추진해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음.
- 같은 해 12월 프로젝트 연구 지역이 후난과 장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중삼각지역 공동 발전 이론에 힘을 실어주게 됨.

○ 2단계

- 2012년 2월 후베이성상무위원회 및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장강중류도시군 건설에 대한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연구기관 간 교류가 탄력을 받으면서 같은 달 26일, 3개 성 사회과학원 및 경제협력추진회에서 공동으로 ‘장강중류도시군포럼’을 개최
- 2013년 6월 우한, 창사, 난창사회과학원 연합회를 조직, 연구 협력 합의서에 정식으로 서명함.
- 2013년 12월 3개 성정부 및 상무위원회와 중국사회과학원 왕웨이광(王伟光) 원장과의 회의에서 장강중류도시군 발전을 중국사회과학원 우선 연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 3단계

- 2015년 4월 5일 국무원 승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8일 우한에서 장강중류도시군포럼 개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 5대 중점 추진사항

○ 도농균형발전

- 우한, 창사, 난창 3개 도시 개혁개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주변 소도시 및 농촌 등 지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파급력을 강화
- 징지우(京九), 옌장(沿江), 후쿤(沪昆) 등 고속철도와 연결하여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 기초 인프라 시설 연계

- 해운, 고속철도 등 교통 인프라 및 자원, 정보통신 기초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상호연계

○ 산업간 협력 발전

- 서비스업 집중 육성기지 및 농업 현대화 기지 건설 등 지역 특색을 갖춘 현대화 체계를 마련하며, 산업별 우선순위에 기초해 구조 전환을 추진

○ 생태문명 건설

- 녹색도시 건설, 생태환경 보호 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체계 강화

○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 교육 과학기술, 의료보건 등 공공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해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개발의 밑거름 마련

자료원: 우한시상무위원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인민왕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상품/시장] 꾸준히 증가하는 중국 수입식품 시장, '품질관리'로 승부해야

- 중국 수입식품시장 규모 500억 달러 육박 -
- 2014년 중국 수입식품 불합격 물량 전년대비 209% 증가 -
- 중국 수입식품에 대한 감독관리 지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jinshengai@kotra.or.kr)



자료원: 바이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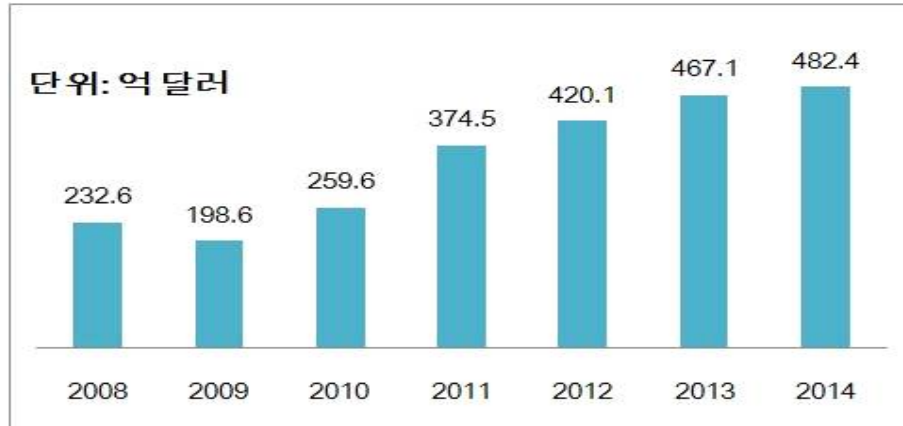
□ 중국 국가질검총국, 2014년 수입식품 품질안전 백서 발표

- 중국 국가질검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2015년 4월 7일, '2014년 중국 수입식품 품질안전 백서'(2014年全國進口食品質量安全狀況白皮書, 이하 '백서')를 발표했다.
- 백서에 따르면 중국 수입식품 규모는 500억 달러에 육박
- 중국 당국이 수입식품 품질관리 강화에 따라 대중 수입식품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 규모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급증

□ 2014년 중국 수입식품 개황

- (시장규모) 2014년 중국 내로 수입된 식품은 104.2만 회에 거쳐, 3514.1만 톤, 482.4억 달러의 규모를 이뤄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7.9%, 7.3%, 3.3%였음.
- 2005년 112억 달러 규모였던 중국 수입식품은 10년간의 발전을 거쳐 4배 이상으로 성장하여 482.4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음.

중국 수입식품 규모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수입국) 중국은 192개 국가 혹은 지역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하고 있음.
 - 그중 TOP 10을 차지하는 국가(및 지역)은 EU, ASEAN, 뉴질랜드,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아르헨티나와 한국
 - 앞자리를 차지하는 상기 10개국 수입금액은 도합 397.8억 달러로 중국 식품수입금액의 82.5%를 차지
 - 점유율로 살펴보면 EU와 ASEAN이 20%에 가깝고 한국은 1.5%에 그친 수준

대중 식품수출국 (2014년)

	수입금액 (억 달러)	점유율
EU	94.1	19.5%
ASEAN	89.1	18.5%
뉴질랜드	61.1	12.7%
미국	55	11.4%
호주	25.3	5.2%
브라질	23.1	4.8%
캐나다	17.7	3.7%
러시아	16	3.3%
아르헨티나	9.2	1.9%
한국	7.1	1.5%
기타	84.7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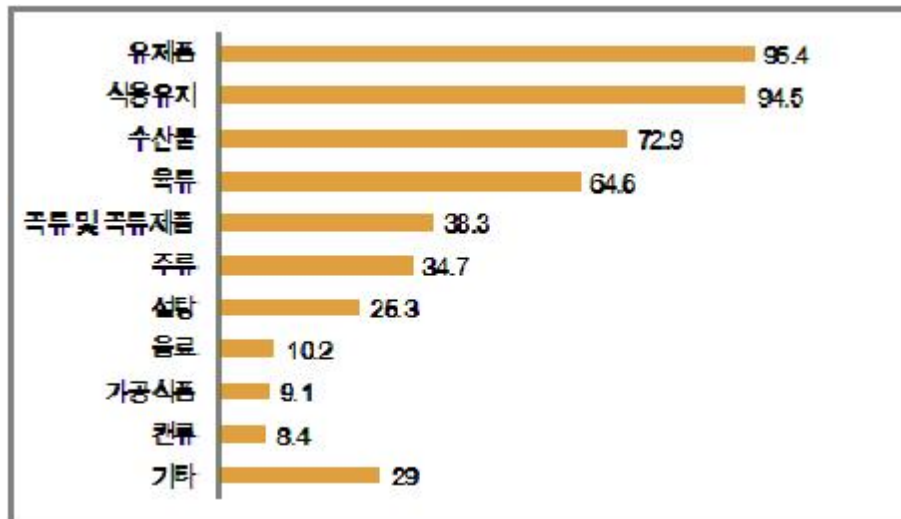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품목) 수입국이 점유율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중 수출식품 품목이 유제품, 식용유지, 수산물과 육류가 주를 이뤘기 때문
 - 교역액 기준으로 대중 수출식품 품목을 살펴보면 유제품, 식용유지, 수산물, 육류, 곡류, 주류, 설탕, 음료, 가공식품, 캔류가 TOP 10을 차지

- 1, 2위를 차지하는 유제품과 식용유지는 주로 EU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나라에서 수입하므로 수입 품목은 직접적으로 수입국의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자오핑(趙萍) 부주임]

대중 수출식품 품목(통관회차)

단위: 만 회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통관지) 중국 수입식품 통관지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주로 중국 동남부의 연해지역에 분포
 - 2014년 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한 통관지(출입국 검역소, 口岸)은 481개
 - 그러나 식품수입 통관지는 상하이, 텐진, 광저우 등 경제발전 수준이 높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메가시티와 칭다오, 다롄 등 연해지역의 주요 항구가 큰 비중을 차지함.
 - * 상하이는 수입금액 기준 20%에 가까운 수입식품이 통관되는 지역임.
 - 베이징은 메가시티이지만 내륙지역이고 중국 북방의 주요 항구인 텐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비중이 기타 메가시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음.

중국 통관지별 수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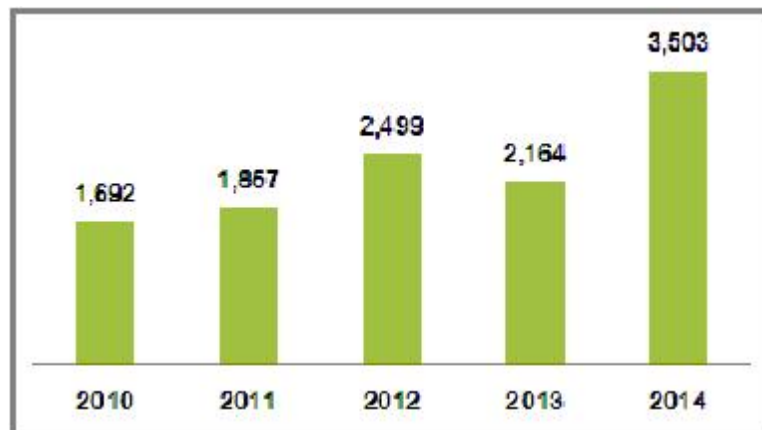
	수입금액 (억 달러)	점유율
상하이(上海)	92.6	19.2%
톈진(天津)	70.3	14.6%
광저우(广州)	55.1	11.4%
칭다오(青島)	42.6	8.8%
다롄(大連)	38.4	8.0%
선전(深圳)	36.4	7.5%
수저우(苏州)	15	3.1%
베이징(北京)	9.9	2.1%
샤먼(廈門)	9.1	1.9%
타이저우(泰州)	6.4	1.3%
기타	106.7	22.1%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중국 수입식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강화되는 추세

- 백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수입식품 점검에서 3503회(批次) 수입식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반송 또는 소각됐음.
- 수입식품의 불합격 물량과 금액은 각각 2.4만 톤과 3268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대비 각각 209.1%, 37.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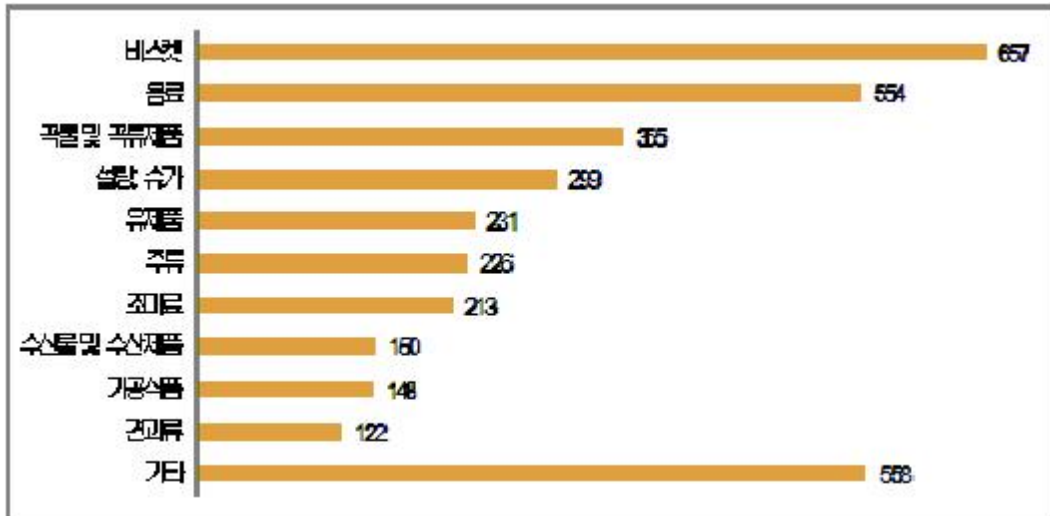
중국 수입식품 점검에서 불합격 판정 받은 회차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품목) 불합격 판정 받은 수입상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TOP 10을 차지한 품목이 전반 불합격 품목의 84.1%를 차지
- * 불합격 품목 TOP 10: 비스킷, 음료, 곡류 및 곡류제품, 설탕(슈가), 유제품, 주류, 조미료, 수산물 및 수산제품, 가공식품, 견과류
- 불합격 회차가 가장 많은 품목은 비스킷, 총 657회에 달함.
- 그 뒤를 음료가 554회로 이어지고 곡물 및 곡물제품이 355회로 3위에 올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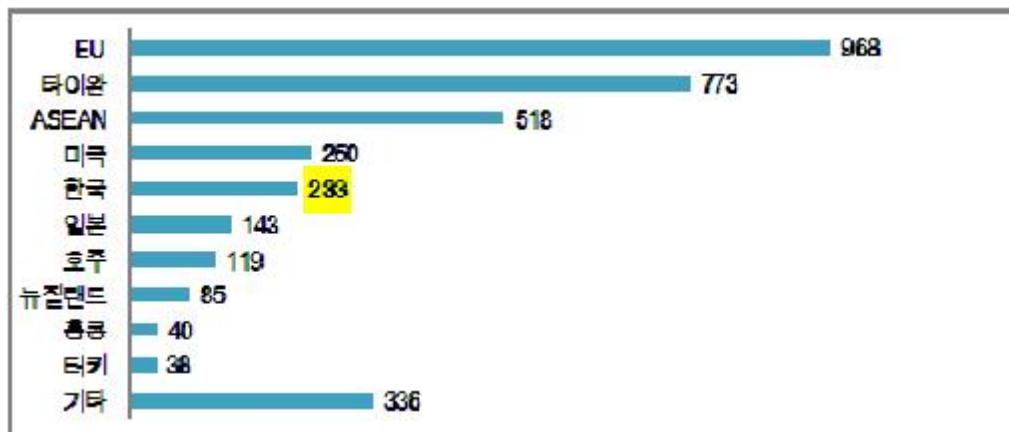
2014년 중국 수입식품 점검에서 불합격 판정 받은 품목별 회차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수입국) 수입국별로 불합격 판정 회차를 살펴보면 대중국 식품수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유럽 지역이 1위를 차지
 - 그 위를 타이완, ASEAN이 이어 각각 2,3 위를 차지
 - 한국은 233회로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중 식품수출에서 비스킷, 음료, 슈가, 가공식품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추정

수입국 별 불합격 상품 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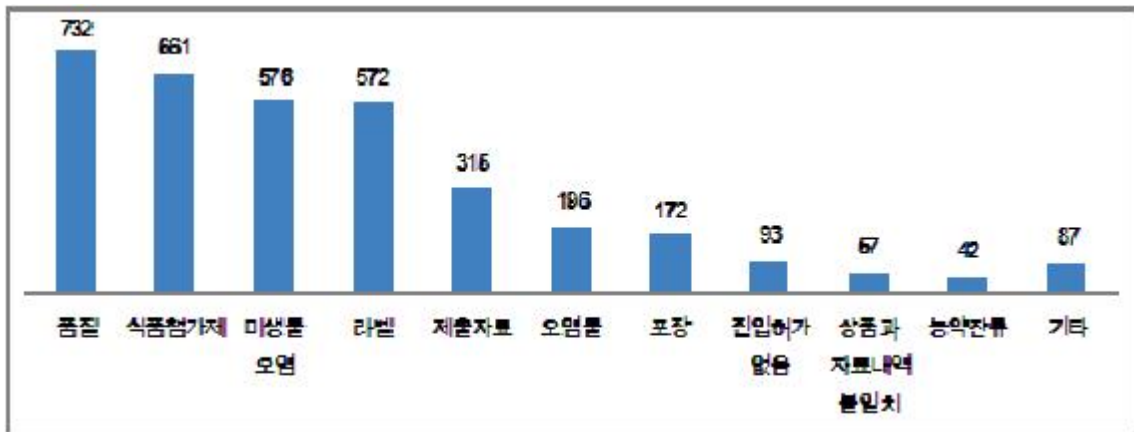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불합격 원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은 품질 문제와 식품안전 문제
 - 1위는 식품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2위는 식품첨가제가 중국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 3위는 미생물 오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백서는 밝히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중국의 수입식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유제품과 식용유지 등 유통기한이 짧고 콜드체인 물류에 대한 요구가 높은 보존이 어려운 상품이기 때문
- 대중 식품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가 유럽, 호주 등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함.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자오핑(趙萍) 부주임]

2014년 중국 수입식품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원인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중국 수입식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고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수입식품 불합격 판정 회차가 해마다 상승할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1000회 이상 급증한 것은 중국 당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중국인들의 소비수준이 향상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식품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할 것을 강조해왔음.
 -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백서’에 향후 중국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의 검역검사를 강화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음.
- 국제물류 시스템 구축, 특히 중국 내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콜드체인은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의 맛과 영양을 유지하도록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유통과정에서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시스템

- 한중 FTA으로 신선식품의 대(對)중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여 한중 FTA 활용도를 최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 우리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규제강화 움직임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의 출시를 예의주시하여 대중 식품 수출을 확대해야 함.
- 일부 수입식품 불합격은 관련 자료의 제출이 정확하지 않아 발생함.
 - 우리 기업들은 대중 수출 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식품 수출시 자료와 품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국제상보(國際商報) 등 종합

[상품/시장] 한국 대형마트, 알리바바 '티몰 국제'에 진출한다

작성자: 칭다오무역관 이맹맹(707048@kot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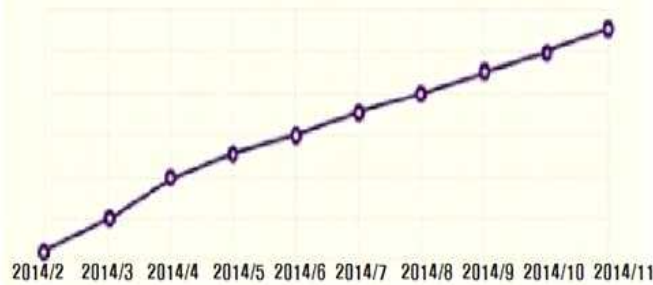
□ 티몰 국제(天猫国际)

- 2014년 2월 19일,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티몰 국제(天猫国际)'가 공식적으로 출범함.
- 티몰 국제는 알리바바(阿里巴巴)가 해외 브랜드와 중국 고객을 연결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임. 해외에서 등록된 기업들만이 티몰 국제에 입점해 외국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음.
- 현재 티몰 국제에서는 화장품, 식품보건품, 영유아제품, 패션가방, 생활 디지털제품 등이 주로 판매됨.

□ 티몰 국제 운영 개황

- 2014년 2월 티몰 국제 출범 이후 미국 최대 온라인 다이아몬드 판매상 Bluenile, 안나수이, 영국의 Karen millen, NYR, 일본 kenko, nissen, kirindo,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와 뉴질랜드 포스트 등이 잇따라 입점함.
- 2014년 11월 말 기준 25개국 5400개의 해외 브랜드가 티몰 국제에 입점함. 이들 상점들의 11월 기준 총 판매액은 2월의 10배를 기록함.

2014년 2월~11월 티몰 국제에 입점한 업체들의 판매액 추세



자료원: 亿邦动力网

- 2014년 2~11월까지 한국의 LG, 미국의 대형마트 코스트코, 내이처스 바운티(Nature's bounty) . 일본의 대형마트 Fresta, 화장품 평가 사이트 @cosme, 뉴질랜드 최대 대형마트 Countdown 등 30개 업체가 기록한 매장별 총 판매액은 1000만 위안을 넘어섬.
- 현재 1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입점을 기다리고 있음. 홍콩리펑 국제(香港利丰国际), 독일의 메트로(德国麦德龙) 또한 티몰 국제에 입점 상담 중임.

□ 티몰 국제 상점의 출하방식

- 티몰 국제는 주로 해외직화 방식과 보세구 출하방식의 2가지 제품 출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상점들이 제품에 따라 출하방식을 자체 결정하며 2가지 방식을 모두 이용하는 상점도 있음.
- 티몰 국제 측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60% 이상의 주문이 보세구 방식을 통해 배송됨. 나머지 주문에 대해서는 해외직배송 방식을 이용하며, 소비자들이 물품을 주문한 이후 물류회사가 중국 국내로 상품을 배송함.
- 보세구 출하방식
 - 보세구 출하방식은 국제전자상거래 기업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에서 미리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해운을 통해 준비된 상품을 보세구의 지정된 해외직구 창고로 배송하는 것임.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전자상거래 기업은 세관 통관절차를 밟은 후 개인물품형식으로 상품을 출하함. 이 경우 행우세(行邮税)를 지불해야 함. 세관심사를 통과한 후 상품 소포는 특급 우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됨. 보세구 방식의 장점은 수입상품이 전통무역 방식을 이용했을 때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지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며, 물류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은 상하이(上海), 충칭(重庆),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정저우(郑州), 광저우(广州), 선전(深圳)의 7개 도시를 이용해 보세구수입 방식을 진행할 수 있음. 티몰 국제는 항저우, 광저우 2개의 도시에 보세구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리바바(阿里巴巴)의 차이나오물류(菜鸟物流)가 창고 저장, 통관, 물류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함. 티몰 국제에 입주해 보세모델을 사용하게 되는 상점들은 반드시 이 2개 도시의 보세창고 중 하나를 지정해 제품을 출하해야 함.



○ 집화 출하방식

- 현재 티몰 국제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유럽, 대만의 전용 집화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집화방식으로 출하하는 모든 제품은 현지 ‘티몰 국제’ 전용 집화창고로 보내짐.



□ 티몰 국제에 입점하는 주요 한국 대형마트

- 현재, 한국의 LG생활건강, 이마트, 롯데마트, CJmall, SBS가 티몰 국제에 입점했음.

○ 롯데마트

乐天玛特 LOTTE Mart

- 2015년 2월, 롯데마트관이 티몰 국제에 정식 개업함.
- 롯데마트관의 주력제품은 삼푸, 목욕용품, 홍삼, 장난감 등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국 상품임. 롯데마트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롯

데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분석한 후, 3월 말 이전에 120종의 신상품을 추가할 것임.

- 티몰 국제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 중 김은 항저우 보세구를 통해 출하되고 있으며, 기타 제품들은 모두 해외직배송 방식을 통해 출하되고 있음.
- 보세구를 통해 출하된 김의 물류비용은 건당 15위안 이상이며, 한국직배송을 이용하는 기타 상품들의 물류비용은 건당 95위안 이상임.
- 아래는 티몰 국제 롯데마트관 상품이미지의 일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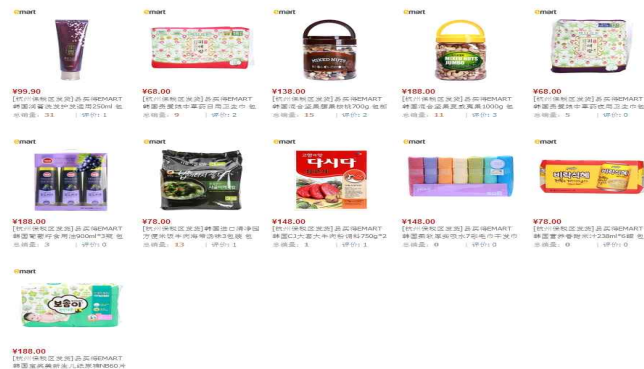


○ 이마트



- 2015년 3월, 이마트가 티몰 국제에서 정식 개업함.
- 현재 판매되는 김, 간식, 음료, 된장, 전기 밥솥, 홍삼정, 여성 위생용품 등을 포함해 100종에 미치지 못함. 이마트에 따르면 상반기 내에 판매될 상품들을 500여 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임.
- 현재 이마트가 티몰 국제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11종의 상품은 항저우 보세구를 통해 출하되고, 기타 제품들은 모두 해외직배송 방식을 이용해 출하되고 있음.
- 현재 해외직배송방식을 이용해 출하하는 제품의 물류비용은 일반적으로 건당 10~30위안임. 몇몇 상품들은 물류비를 면제받고 있음. 보세창고에서 출하되는 상품의 물류비용은 건당 10위안 이상이며, 그 중 일부의 상품들 또한 물류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음.

- 아래 이미지는 현재 이마트 항저우 보세구를 이용해 출하되는 제품들임.



□ 시사점

- 티몰 국제의 책임자인 신광(荀况)은 전통적인 방식의 해외직구가 몇몇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힘. 첫째, 구매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임. 일반적으로 고객이 주문을 하고 물품을 받을 때까지 30일에서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통관이 원활하지 못한 일부 상품들은 60일 이상 걸리기도 함. 둘째, 가격이 매우 비쌌음.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면 비싼 국제 배송비를 지불해야 하며 그 외에도 행우세가 부가됨. 셋째, 해외상품의 품질이 완벽히 보장될 수 없음. 넷째, 전통적인 해외직구방식은 탈세의 가능성이 있음. 그는 향후 티몰 국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2014년 11월 11일, 미국의 코스트코는 티몰 국제에서 2200만 위안의 당일 판매액을 기록함. 이는 세계적인 소매기업들이 중국 소매시장에 관심을 갖도록 이끔. 알리바바는 현재 유럽의 10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티몰 국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이 중에는 중국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2년만에 퇴출당한 독일의 메트로도 포함돼 있음. 이미 중국 내수시장에 깊숙히 진입한 대만의 유명 대형마트 다룬파(大润发), 통일(統一) 등과의 협력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됨.
- 중국의 인터넷쇼핑 시장은 매년 4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잠재 수요가 매우 큼. 롯데마트 담당자는 티몰 국제에 롯데마트관을 개설한 것을 계기로 중국 소비자에게 한국 상품을 더욱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함. 또한 다른 한국 제조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함.

- 이마트 인터넷쇼핑 총책임자 최우정은 “중국 인터넷 쇼핑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해외직구시장의 성장폭 또한 한국보다 높다”고 말함. 이마트는 중국 인터넷쇼핑 시장에 진입해 한국상품의 판매경로를 넓히고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에 대한 해외직구 수요를 확대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3월 19일, 위안통 특급우편(圆通速递)은 알리바바의 차이나오 물류시스템(菜鸟物流网络)을 이용해 상하이 푸둥(上海浦东)-한국 인천-칭다오(青岛)-홍콩-상하이푸둥을 연결하는 국제항공노선 전세기 서비스를 시작했음. 국내-동북아(한국), 홍콩-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특급화물 채널을 만든 것임. 이 항공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홍콩 등지의 수입상품들을 구매할 때 효율 높은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현재 식품, 화장품, 영유아용품 및 생활용품은 티몰 국제의 베스트셀러임. 관련 한국 기업들은 티몰 국제 혹은 기타 플랫폼을 이용해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판매경로를 확대할 수 있음.

자료원: 联商网, 天猫国际, 网易, 搜狐网, 中国宁波网, 人民网, 新浪网, 上海商报, 凤凰网,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상품/시장] 황금기를 맞이할 중국의 중·고가 아동복 시장

- 산아정책 완화로 찾아온 아동복 황금기 -
- 바링허우(1980년대 출생) 젊은 엄마들의 감각을 앞서는 것이 관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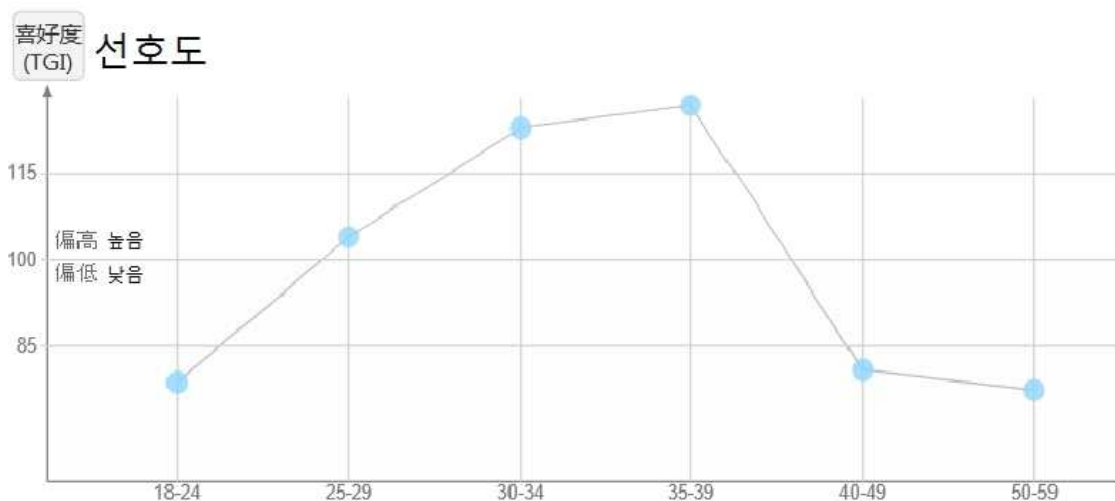
작성자 : 샤먼무역관 함서원(haamsw@kotra.or.kr)

□ 중국의 아동복 시장 현황

○ 중국 아동복 시장의 성장 배경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3년 말 중국의 0~14세 인구는 약 2억200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16.4%에 달하는 수치
- 2013년 중국의 산아정책이 완화돼 2014년부터 부부가 양쪽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됨.
- 중국인구학회는 2015년에는 완화된 산아정책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0만 명 증가한 약 18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추정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5년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산아제한정책의 추가 완화를 검토 중이라 밝힘.
- 1970년대~1980년대생, 직업별로는 사업가 또는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화이트칼라 계층, 기타 고소득 계층이 시장소비를 선도함. 이들은 중고가 외국 아동복에 대한 수용도가 비교적 높음.

아동복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 조사



자료원: 타오바오 지수

□ 중국 아동복 시장규모

- 중국 아동복 시장규모는 2008년부터 연평균 13.6% 증가하며 2013년에는 1000억 위안을 돌파. 연간 성장률 25~30%에 달함.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중국 내 유아동복 시장규모는 약 1400억 위안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약 15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 예측함.
- 중국 아동복은 연령에 따라 영아(0~3세), 유아(4~6세), 키즈(7~12세), 청소년(13~17세)으로 나눌 수 있음. 그중 영아, 유아복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348억 위안을 초과해 아동복 시장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영아, 유아복시장의 시장규모는 2015년 1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이라 전망 (자료원: KOTRA 글로벌윈도우 '중국 아동복 시장은 무한 경쟁중' 2013.8.11. 우한무역관)
- 시장전문조사기관인 즈옌(智研)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80년대, 90년대생 부모들이 소비를 주도할 것이며, 아동복 시장규모는 2017년 1777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아동복시장 추세

- 인구 구조의 변화, 신흥 중산층, 고수익 커리어우먼의 등장으로 중국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짐.
- 아동복 시장의 전문화와 세분화
 - 스포츠, 캐주얼 아동복이 최근의 가장 큰 추세.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중시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스포츠, 캐주얼, 아웃도어 아동복의 수요 증가
 - 대체로 성인의류의 디자인 및 기능을 아동복에 적용하는 추세. 이는 품질과 디자인에 비교적 민감한 80년대생들의 기호가 작용한 것. 이러한 특성상 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매가 두드러짐.
- 아이만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광고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함.
 - 중국 토종 브랜드 대다수 외국인 유아모델을 기용해 고급·고품질의 이미지 구축
- 중국 내 주요 아동복 브랜드

상표	기업설명	특징	국가(본사기준)
	기업명 :바라바라(巴拉巴拉) 설립연도: 2002 년 위치: 저장성	창립 후 10 년간 고속성장, 중국 내 약 3500 개 매장 운영, 중국 500 대 민영기업 중 하나	중국
	기업명: 난지런(南极人) 설립연도: 1997 년 위치: 상하이시	주요 제품은 내복, 0~80 세까지 W다양한 소비군	중국
	기업명: 디즈니키즈(迪士尼) 진출연도: 2002 년 위치: 상하이시	미국 브랜드, 캐릭터아동복의 원조	미국
	기업명: 안나이얼(安奈兒) 설립연도: 1996 년 위치: 선전시	중국 내 약 1500 개 매장 운영, 2013 년 매출액 약 13 억 위안, 비교적 성숙한 스타일의 디자인	중국
	기업명: 이랜드 진출연도: 1994 년 위치: 상하이시	한국브랜드, 중국 내 성인의류 브랜드 보유, 중국 내 약 5000 개 매장 운영	한국
	기업명: 파이커란디(派克蘭帝) 설립연도: 1994 년 위치: 베이징시	고품질 글로벌화 중시, 가필드 캐릭터를 중국 아동복 시장에 최초 도입, 동일상품 시장점유율 1 위	중국
	기업명 :빠부도우(巴布豆) 설립연도: 1994 년 위치: 항저우시	2007 년 아디다스와 아동상품 위탁판매	중국
	기업명 :아가방(阿加邦) 진출연도: 1996 년 위치: 상하이시	2014 년 랑시그룹에 인수, 랑시그룹의 중국유통망을 이용해 새로운 활로 개척 기대	한국

□ 시사점

- 새로운 소비집단인 빠링허우, 지우링허우(80后, 90后)에 대한 이해 필요
 - 새롭게 부상하는 빠링허우 세대는 기성세대처럼 소재나 가격에 민감한 것은 물론 디자인과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한 구매 고려요소임.
- 아동복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인식 필요. 아동복의 필수요소인 편리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인복의 다양한 요소들을 아동복 시장 내에 도입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

- 온라인 마켓의 특성상 초고가형 제품보다는 중가의 미니멀한 아동복 시장이 유망
- 거점도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져보고 물건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시스템이 유망
- 지역별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용을 통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및 피드백

자료원: 중국정보망(中國情報網), 중국키즈넷(kiznet), 타오바오지수(淘寶指數), 링크샵(聯商網), 중국정보산업망(中國產業信息網), 제일재경(第一財經), 코트라 글로벌원도우, KOTRA 샤먼 무역관 자료 종합

[통상/투자] 52개국 모집한 AIIB, 아시아 인프라투자 활성화 촉매제될까

- 3월 31일, AIIB 참여신청국 52개로 신청마감 -
- 韓 창립회원국으로 AIIB 참여 -
- 中 일대일로 사업에 자금조달 본격화 예상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jinshengai@kotra.or.kr)

□ 중국이 제안한 국제금융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은 중국이 제안, 주도 창설하는 국제금융기구
 - 2013년 10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처음 창설을 제의
 - 2014년 10월, 아시아 21개국이 AIIB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 초기자본금 500억 달러 규모로 공식 출범했음.
 - * 2014년 10월 당시 MOU 참여 국가(총 21개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및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ASEAN 9개국 등
 - 중국 현지 언론들은 2015년 말, 늦어도 2016년 연초에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 AIIB는 아시아 인프라 건설 투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특히 ADB(아시아개발은행)의 부족한 자금력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0년~2020년 아시아 각국이 국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은 8조 달러, 국가 및 지역 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은 3000억 달러로 추정됨. (자료원: 아시아개발은행)
 - 그러나 아시아 각국과 기존의 국제금융기관의 융자시스템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매년 아시아 인프라 구축에 약 8000억 달러의 자금이 부족함.
 - 이외 AIIB는 일부 참여국, 예컨대 중국, 영국 등 국가의 외환보유액을 해소하고 투자수요를 만족시키는 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

□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 대륙을 아우르는 국제금융기구, 한국 참여 확정

- AIIB 창립회원국 가입 신청 마감일인 2015년 3월 31일 기준 총 52개국이 가입을 신청, 그중 G20 구성원은 13개국
 - 신청 참여국 중 아시아가 31개국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유럽 17개국, 대양주 2개국, 남미 및 아프리카 각각 1개국임.

대륙별로 보는 참여신청국

대륙	참여신청국
아시아 (31 개국 및 지역)	한국,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몰디브,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터키, 아제르바이잔, 타이완
유럽(17 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루지야,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대양주(2 개국)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1 개국)	이집트
남미(1 개국)	브라질

자료원: 중국 현지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구성

- 한국은 2015년 3월 26일 공식으로 AIIB 참여의사를 밝혔음.
 - 미국과 일본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의 참여는 경제, 정치 및 외교방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됨.
- 서방국가 중에는 2015년 3월 12일 영국이 처음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AIIB 가입을 공식 선언, 이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서방국가가 추가로 가입의사를 밝혔음.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등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세하면서 AIIB는 명실상부 국제금융기구로 부상

□ 본격 준비단계 들어선 AIIB, 집행부 구성과 지분율 배분이 관건

- AIIB 창립 회원국들은 오는 6월까지 본부 유치, 총재 및 부총재 자리 배분, 지분율 등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
 - AIIB 본부는 베이징 금융가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원: 제일재경일보, 21세기경제보도 등)
 - 현재 중국 재정부 진리첸(金立群) 전 부부장(차관급)이 AIIB 임시사무국 국장을 맡고 있음.

- 진 국장이 AIIB 업무를 맡은 것은 지난해 10월 AIIB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하루 전임.
- 진 국장이 중국국제금융회사 회장직에서 퇴임하고 AIIB 준비팀 업무를 주관하면서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진 국장을 AIIB 초대 총재 유력후보로 꼽고 있음.
- 진 국장은 1949년생으로 베이징 외국어대학교를 거쳐 미국 보스턴대학교에서 유학한 적이 있는 유학파
- 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세계은행 중국 상임이사로 파견된 적이 있으며 2003년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로 임명된 경력이 있는 국제금융통으로 알려져 있음.
- AIIB 임시사무국 국장을 맡기 전까지는 653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중국 투자유한공사(CIC)의 총감과 국제금융유한공사 이사장을 역임
- 진 국장이 초대 총재 후보로 물망에 오른 데는 중국이 AIIB 회원국 중 가장 많은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자료원: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왕전(王軍) 연구원]

AIIB 임시사무국 국장 진리첸 약력

기본 정보		
	이름	진리첸 (金立群)
	출생연도	1949 년
	학력	베이징 외국어대학 미국 보스턴 대학
	현직	AIIB 임시사무국 국장
	전직	중국 국제금융공사 이사장
주요 경력		
1994 ~ 1995 년	중국 재정부 세계은행사(司) 사장	
1995 ~ 1998 년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 조리(助理)	
1998 ~ 2003 년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	
2003 ~ 2008 년	ADB 부총재	
2008 ~ 2013 년	중국투자공사(CIC) 감사장	
2013 ~ 2014 년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 이사장	
2014 10 월 ~ 현재	AIIB 준비업무 주관, 임시사무국 국장	

자료원: 중국 현지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구성

- AIIB가 회원 가입을 마무리하고 개최할 창립업무회의에서는 지분과 투표권 배분을 결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아시아와 비(非)아시아, 중국과 한국, 유럽 등 참여국의 의사결정 구조임. (자료원: 21세기

경제보도, 2015년 4월 2일)

- 진 국장은 미, 일 등 대국이 불참한 관계로 AIIB 창립초기 중국의 지분율은 50%에 달할 것이며 아시아 국가의 지분율이 75%, 비아시아 국가는 25%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
- 또 의사결정은 투표권이 아닌 합의로 이뤄질 것이며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로 중국의 지분율도 희석될 것이라고 강조
- 중국 언론은 52개국이 참여한 AIIB에서 중국의 지분율은 최대 비중 39%로 예상하고 그 뒤를 이어 인도가 8%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3위는 독일, 4위는 프랑스, 5위는 한국 순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의 지분율은 5% 정도로 예상 [자료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015년 4월 2일자 보도인용]

- AIIB는 초기자금 500억 달러로 출발해 자본금을 10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 올해 말까지 출자, 지분율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돼 늦어도 2016년 초에는 정식 운영될 것으로 전망
- 올해 6월까지 각 회원국의 출자, 지분율 등에 관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회원국의 국회 혹은 의회 등 입법기관의 비준 절차를 거쳐 합법화 되면 2015년 말, 늦어도 2016년 초 정식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AIIB 향후 준비과정

2015년 3월 31일	창립회원국, 참여 의향국 신청 마감
2015년 4~6월	회원국 지분율, 본부 유치, 총재 및 부총재 임명 등 협상
2015년 6월	협정문 서명
2015년 하반기	국가별 국회(의회) 비준 절차
2015년 말	정식 운영

자료원: 중국 현지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구성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오는 6월까지 AIIB 가입 여부를 유보했던 일본도 창립회원국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임.
- 2015년 6월 초 일본과 중국이 3년 2개월 만에 재무장관 회의를 열 계획이며 베이징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일본의 AIIB 참여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제 및 금융관련 규정 제정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AIIB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8400억 달러 규모에 달함.
 - 외환보유액을 해소하고 투자처를 넓히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주변국과의 금융방면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시도해 왔음.
 - 최근 2년간 중국 정부가 참여, 주도 설립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투자액만 3000억 달러에 육박함.

중국이 참여, 주도한 국제금융기구 설립상황

	설립시기	자본금	참여국
브릭스개발은행 (New Development Bank)	2014 년 7 월	1000 억 달러	브릭스(BRICS) 5 개국
위기대응기금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	1000 억 달러	중국이 410 억 달러, 러시아와 브라질, 인도가 각각 180 억 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50 억 달러 출자 예정
실크로드 기금 (絲路基金)	2014 년 10 월	400 억 달러	중국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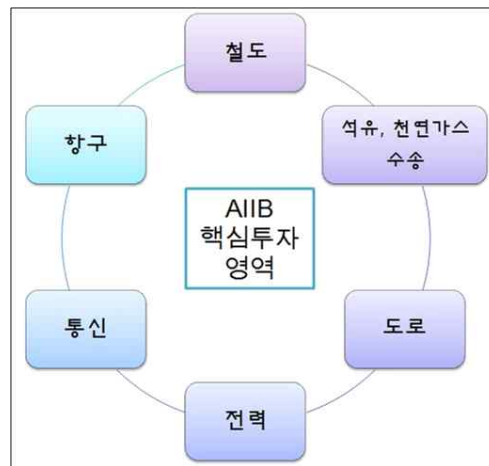
자료원: 중국 현지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구성

- AIIB가 높은 참여도를 이뤄내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중국 위안화 국제화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 지난해 중국 대외거래 중 위안화로 결제된 금액은 25%로 2009년 0.0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폭발적으로 확대
 - 중국은 현재 전 세계 15개 역외 위안화 청산소가 설립돼 있음.
 - 또 러시아와 영국, 호주를 포함한 20개국 중앙은행들이 중국과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
 - 위안화 국제화 행보가 보폭을 넓혀가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 수출, 국제금융기구의 설립 등은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에 큰 힘을 보탬 것으로 예상
- AIIB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
 - AIIB의 첫 번째 투자처는 중국 정부가 최근 세부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한 일대일로로 추정됨.
 - 특히 철도, 도로, 항구 등 교통 인프라 건설, 석유, 천연가스 수송과 같은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구축, 전력과 통신 인프라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아시아, 특히 중국과 주변국 간의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연결하고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 기업들은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움직임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철강 등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의 대외수출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함.

AIIB 핵심 투자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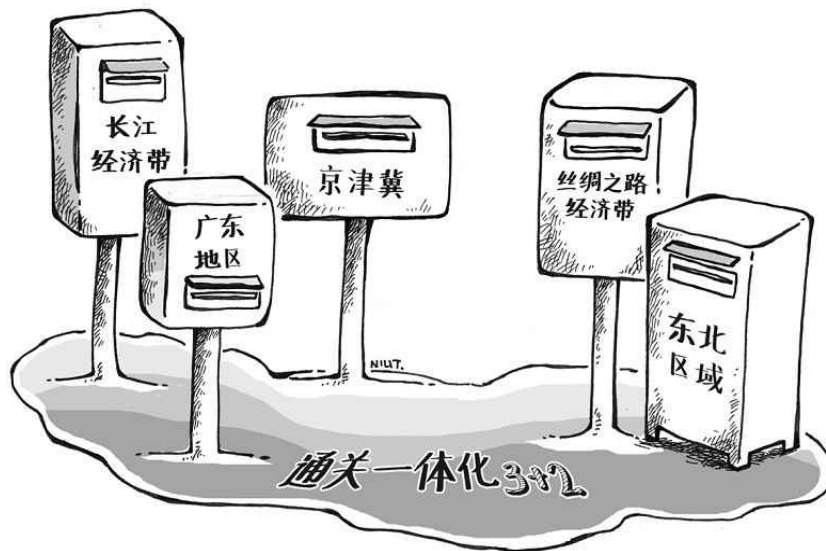
자료원: ANZ Bank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재경(財經)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통상/투자] 中, 통관 일체화 통해 ‘일대일로’ 정책 박차 가한다

- 중국 5대 구역 통관 일체화 개혁 가동 -
- 육상 실크로드 관련, 중국-중앙아시아 간 무역 활성화 기대-

작성자 : 시안무역관 강혜진(400707@kotra.or.kr)



자료원: 화신(和讯)

□ 중국 5대 구역 통관 일체화 개혁 가동

○ ‘3+2’ 구역 통관 일체화

- 지난해 7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구역 통관 일체화 개혁 시행을 시작으로, 9월에는 장강 경제벨트 통관 일체화를 시범 시행함.
- 12월에는 장강경제벨트 구역 통관 일체화 지역이 12곳으로 늘어났으며, 광둥(주강삼각주) 지역 또한 통관 일체화 개혁이 시행됨.
- 5월 1일부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동북지역 통관 일체화 개혁이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 지역 해관 상호간 네트워킹을 형성해 ‘3+2’ 형태로 중국 전국 5대 구역 통관 일체화를 가동할 전망이다.
- 중국 언론은 ‘3+2’ 구역 통관 일체화는 일대일로 전략 실현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실크로드 경제벨트 통관 일체화

- 3월 30일, 중국 해관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역 통관 일체화 개혁을 한다고 밝혔음.
- 실크로드 경제벨트 통관 일체화 개혁은 중국 국가 발전 전략인 일대일로 정책에 발맞춰 시행하게 됨.
- 5월 1일부로 9개 성 10개 지역 해관이 통관 일체화 개혁을 시행함.
-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은 중국 동부 연해에서 서부 변경까지 이어지며, 지역별 경제·문화 차이가 큼. 따라서 5개의 통관 일체화 구역 중 가장 범위가 넓고, 내부 사정 차이가 큼.

9개 성(省): 산둥(山东), 허난(河南), 산시(山西), 산시(陕西), 간쑤(甘肃), Ningxia(宁夏), 칭하이(青海), 신장(新疆), 티벳(西藏) 10개 해관: 칭다오(青岛), 지난(济南), 정저우(郑州), 타이위안(太原), 시안(西安), 란저우(兰州), 인촨(银川), 시닝(西宁), 우루무치(乌鲁木齐), 라사(拉萨)

○ 동북지역 통관 일체화

- 중국 관세청은 동북진흥 정책과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동북 지역 6개 해관에 대해 통관 일체화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함.
- 동북3성과 네이멍구(内蒙古)의 다롄(大连), 선양(沈阳), 창춘(长春), 하얼빈(哈尔滨),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만저우(满洲) 6개 지역 해관이 해당됨.
- ‘하나의 중심, 네 개의 플랫폼(一中心, 四平台)’ 지향. 하나의 중심은 구역 통관 중심을 뜻하며 네 개의 플랫폼은 신고 플랫폼(申报平台), 위험 방지 및 컨트롤 플랫폼(风险防控平台), 전문 문서감정 플랫폼(专业审单平台), 현장작업 플랫폼(现场作业平台)임.

□ 통관 일체화 개혁 내용

○ 통관 절차 간소화

- 통관 일체화 개혁 구역 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해당 구역 내 항구에서 수출입하는 화물에 적용됨.
- 기업은 업체 주소지 해관, 화물 실제 수출입지 해관 혹은 직속 해관 집중보관점(集中报关点) 중 한 곳을 선택해 세관 신고, 세금 납부, 화물 검사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기업은 항구 통관, 중계수속, 구역통관일체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 통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통관 절차를 대행하는 통관기업이 한 지역에서 등록하고 여러 지역에서 통

관 수속을 하는 것(一地注册, 多地报关)을 허가 함.

- 일체화 개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통관기업이 개혁 구역 내에 지사를 설립하면, 해당 구역 세관에서 세관 신고가 가능함.

○ 지역 해관의 통관시스템 및 절차 통일

- 상품 사전 분류, 가격 사전 심사, 원산지 사전 확정 및 분류, 가격, 원산지 등에 관한 전문 인 정결과 및 일시 출입경 등에 관한 행정 허가 결정 등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통일

□ 통관 일체화 개혁 효과

○ 통관, 물류 운송비용 절감

- 통관 일체화 개혁 가동 이후 기업의 물류 비용이 20~30%가량 감소할 것이라 예측됨.
- 징진지 지역 통관 일체화 개혁 이후 베이징을 경유해 텐진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경우 운송비가 30%가량 감소했으며, 텐진을 경유해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경우에는 통관비용이 30%가량 감소했음.
- 광둥, 장강 경제벨트 지역에 위치한 무역기업 또한 이와 같은 비용절감효과를 보았음.

○ 통관시간 단축

- 통관 절차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통관시간 또한 단축됨.
- 광둥지역 통관 일체화 개혁 이후, 평균 8.3시간이었던 통관시간이 3시간가량 감소해 평균 5.96시간 정도 소요됨.
- 24시간 이내 통관율은 평균 91.44%에서 92.45%로 증가함.
- 창춘해관(长春海关)에 따르면, 이번 동북지역 통관 일체화 개혁을 통해 창춘(长春)과 다롄 간 운송 및 통관 시간이 12시간에서 최대 24시간 가량 감소할 것이라 예상됨.
- 통관 일체화가 시행되는 다른 지역 또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국제무역 단일창구의 형성

- 중국 국무원은 주요 해관과 항구의 통관 일체화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자국 수출입의 단일창구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임.
- 중국의 수출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입 단일창구로 물류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중국 국제무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국제물류운송의 '황금통로'

-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통관 일체화는 물류운송의 '황금통로'가 될 전망
-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해상, 항공, 철로, 육로 운송이 모두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10개 해관이 통관 절차를 통일하면 일대일로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수출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중국해관(中国海关), 신화망(新华网), 화신(和讯), 중국 일보망(中国日报网) 등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특파원 칼럼

[월드리포트] 첫 돌 갓 지난 아기에게 매독 검사, 왜?

우상욱 기자

20년도 넘은 일입니다만, 아직도 가끔 고개를 갸웃 거립니다. 대학생 시절 독한 장염에 걸렸습니다. 본래 장이 썩 좋지 않아 때때로 고생합니다. 그래도 사나흘 죽을 먹고 조심하면 나아졌는데 그 때는 영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본 곳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경력을 슬쩍 보니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내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괜찮을까? 장염 정도야 별 문제 없겠지.' 중년의 의사는 문진을 하고 청진기를 대보더니 갑자기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염이 아니라 더 큰 병인가?' 더럭 겁을 먹었습니다. 그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거의 전신을 찍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판독기 가득 제 엑스레이 사진을 붙여놓고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척추가 이렇게 휘었습니다. 몸의 골격이 바르지 않으니 장기에 필요 없는 압력이 가해지고 장염에 걸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골격을 바로 잡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장염 치료약이라기에는 턱 없이 많은 종류의 약을 받았습니다. 전신 엑스레이에 약까지 한 가득이다 보니 애초 어림잡아 들고 갔던 돈으로는 진료비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급히 집에 돌아가 돈을 더 갖고 다시 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록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내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또 다른 의원에서 장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날 비싼 돈을 주고 받아온 약들은 어딘가에 처박혀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 당시 일을 떠올릴 때마다 궁금해집니다. '그 의사의 말을 믿고 척추측만증 치료를 받았다면 다시는 장염에 걸리지 않고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과잉 진료에 바가지를 썼던 것일까?'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 사는 한살 반짜리 여자 아기 통통과 그 가족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오후 1시 유아원에서 놀던 통통은 그만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꽤 끔지막한 흑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란 통통의 아버지 엔씨는 당장 통통을 데리고 시내에서 제일 큰 아동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CT 촬영과 함께 채혈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흑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통통을 신경외과에 입원 시켰습니다.

19일 아침 엔씨가 치료비 계산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루에 3천 위안, 우리 돈 약 53만원이 청구됐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천5백여 위안, 약 27만 원쯤이 채혈 검사 비용이었습니다. 엔씨는 생각보다 훨씬 비싸다 생각하며 검사 항목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한 항목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매독 감염 여부 검사.

아니 이제 겨우 1년 5개월 된 아기 통통에게 매독 검사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담당 간호사에게 연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원래 수술을 받거나 수혈을 받는데 대비해 하는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통통은 며칠 뒤인 23일 퇴원했습니다. 수술도, 수혈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엔씨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치료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매독 검사를 한 것 아니야?

SNS를 통해 이 일이 알려지면서 지역 언론에서 취재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1년 5개월 된 아기에게 매독 검사가 왜 필요한가?

"신경외과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매독 검사는 의례적, 아니 필수적으로 행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언제 뇌 등에 출혈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때는 관련 검사를 시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술이나 수혈 과정에 매독에 감염 됐을 때 사전에 매독이 있었는지를 미리 확인해둔다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관계 당국에 문의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외상에 대한 검사에서 A형과 B형 간염, 에이즈, 그리고 매독에 대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적인 출혈이 전혀 없고 내부 출혈만 의심되는 상처에도 앞서 열거한 검사가 필요한가요? "그 경우에는 앞서의 규정에 딱 들어맞는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겠네요. 다만 그렇다고 의료진의 규정 해석이 심각하게 잘못 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년 5개월 된 아기에게 매독 검사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으

로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종의 방어 진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겠습니다만, 매독에 감염된 아동 환자일 경우 자신이 그에 대한 책임을 억울하게 지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아가 매독 검사를 아예 필수 과정에 넣어두면 필요한 상황에 깜빡 잊고 하지 않는 실수를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런 식이라면 의료진은 자기 보호를 위해 백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이라도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검사를 하려 들 것이고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 측이 져야하겠네요. 바람직하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료는 대표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옷을 사는 경우라면 판매업자가 이런 저런 옷을 권할 때 주체적으로 따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의료진이 권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전문가인 의료진에 비해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일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소비자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자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불필요한 데도 강매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불신을 떨치기 힘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공급자는 소비자의 이런 심리까지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을 사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공급을 제안해야 합니다. 첫돌을 겨우 지난 아기에게 매독 검사까지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장염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다짜고짜 전신 엑스레이를 찍으며 척추측만증 치료부터 권하는 것이 어떤 느낌을 줄 지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아닐까 싶습니다.

★원문보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15743&plink=SEARCH&cooper=SB SNEWSSEARCH

추천 보고서

□ 한중 간 상호 수입침투율 특징과 시사점

<요 약>

1. 주요 경제 현안
 - 한중 간 상호 수입침투율 특징과 시사점
2.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보고서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50416/1.pdf>

자료출처: 현대경제연구원

□ 중국 통화정책 방향-경기둔화에 맞선 방어적 조치 시행

<요 약>

1. "경착륙 우려" 再現
2. 완화적 통화정책 전환 조짐
 - 통화완화로의 전환
 - "중국판 QE" 기대 확산
3. 향후 통화정책 방향
 - 중성(中性)통화정책
 - 추가 경기둔화 방어를 위한 완화적 기조 선택

보고서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50416/2.pdf>

자료출처: 하나금융연구소

투자진출 A to Z

□ [양로보조금] 산동성 독생자녀 보유자 퇴직 시 양로보조금 지급 여부

(질문)

청도에 있는 피혁제품 제조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퇴직자가 있는데, 퇴직 시 자녀가 하나면, 회사에서 퇴직 전해의 청도평균 월급의 30%를 지급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처음 듣는 것이라 실제 이런 강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답변)

아래 질의응답에서 보듯이, 황당하기는 하지만, 산동성, 청도시의 지방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어, 기업들이 거부하면 소송이 벌어지고 소송하면 100% 패소합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산동성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커버해야 할 복지비용을 왜 기업이 떠맡아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중앙법규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강제화할 수 있는지, 한국기업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만, 중국은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지방법규가 공포되면, 그 지방 사법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재판을 내립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시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독생자녀영예증 (독생자녀 1명만 출산하겠다는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서약서)을 보유한 자에게만 국한된 것이므로, 지급전에 독생자녀영예증의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자는 50세, 남자는 60세가 정년이므로, 가급적 정년에 임박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49세의 여성을 채용한다면, 기업은 1년 뒤에 청도시 연간 사회평균임금 약 4만원의 30%, 즉 1만2천원을 별도로 1회성 양로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일 경우는 정년퇴직 시는 경제보상금을 한 톨도 줄 필요가 없으므로, 위로금 돈다 생각하고 3개월만큼 주되, 서면으로 1회성 양로보조금이

라 명칭을 명확히 써서 서면 수령증을 받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질문)

산동성에는 정년퇴임자에 대한 독생자녀 양로보상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임을 할 경우 경제보상금 대신 "기업이 소속된 시의 직공의 일 년 평균 급여의 30%"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항인지요? 고문님을 통해 재확인코자 합니다.

(회신)

1. 아래가 바로 관련된 청도시의 행정 문건입니다.

청도시 단위의 인구 및 계획출산업무 책임규정

青岛市单位人口和计划生育工作责任规定

(四) 对已领取《独生子女父母光荣证》的企业职工, 退休时由所在企业按本市上一年度职工年平均工资的30%发放一次性养老补助; 기<독생자녀영예증>을 수령한 직원이 퇴직 시는 본 청도시 전년도 직공 연간평균임금의 30%에 해당하는 1회성 양로보조금을 기업이 지급한다.

(五) 对已领取《独生子女父母光荣证》、在所在企业连续工作满15年、距法定退休年龄不足5年的职工, 因所在企业裁员或与职工协商解除劳动关系, 由所在企业按解除劳动关系时本市上一年度职工年平均工资的30%发放一次性养老补助; <독생자녀영예증>을 보유하고, 연속근무 15년 이상이고 법정퇴직연령까지 5년 미만인 직원이 감원 혹은 협상해제 시, 청도시 전년도 직공 연간 평균임금의 30%를 1회성 양로보조금으로 기업이 지급한다.

2. 이와 관련해, 중국 비지니스포럼 카페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소개드립니다.

2013년 8/23 에 게시된 <정년퇴직이 임박한 노동자 고용 시 유의사항> 을 읽다가 제가 경험한 사례가 있어 참조가 될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양로보조비 지급에 대한 규정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산동성인구와계획생육조례) 제31조 2항

기업에 재직 중인 독생자녀를 둔 직원이 은퇴할 경우 기업소재지의 전년도 직공연간평균임금의 30%를 양로보조비로 일시 지급한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 지급대상 : 국가규정상 은퇴연령에 도달하고 자녀가 1명만 있는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여자 : 50세, 남자 : 55세, 60세)
- 지급방식 : 기업은 소재지 시의 전년도 년 간 평균급여 30%를 일시 지급 후 노동국에 등재한다. (기업이 파산 등의 상태가 아니라 지급능력이 있으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 노동중재신청,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상관없이 직원이 은퇴연령에 도달하며 퇴직하는 시점에서 재직한 회사는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조항이며, 금년 초에 발생한 건으로 2011년도 평균임금 RMB37,375을 적용하여 RMB11,212.50 을 지급하였습니다. 몇 달 전에 퇴직한 직원이 찾아와 느닷없이 요구하니 조례가 있으니 별 수 없이 지급했습니다만 당황스럽고 나이든 직원은 자녀수도 알아봐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동성에 계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양로보조금] 산동성 독생자녀 보유자 퇴직시 양로보조금 지급 여부
([KOTRA] 중국 비즈니스 포럼)

작성자 [pyungbok](#)

구매정보

TR 아크릴, 한국 옷감 순면, PEACH SKIN

(※ www.buykorea.or.kr에서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제 품 명 : TR 아크릴, 한국 옷감 순면, PEACH SKIN

☐ 업체정보

- 회 사 명 : Yiwu Samba Clothing co., LTD.
- 주 소 : Moslem Industries Park, Wuzhong Municipality, Ningxia, China
(中国宁夏吴忠市清真产业园)
- 담 당 자 : Mr. Gao Baoshan (高保山)
- 전 화 : +86-137-7751-1737
- 메 일 : Arabclothing@qq.com

☐ 내 용

- 중국 Ningxia回族自治区 오충시에 위치한 회사인 Yiwu Samba Clothing co., LTD.에서 하기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 수입희망품목

- 품목 : TR 아크릴, 한국 옷감 순면, PEACH SKIN
- 수량 : 2,000 필
- 기타 요구사항 :
제품소개 및 견적서 메일로 송부 요망

KOTRA 베이징 무역관 연락처

담당자: 우춘희

- 주소: Suite 2201, Hyundai Motor Tower, 38 Xiaoy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 전화: +86-10-64106162 ext. 69
- 팩스: +86-10-65052310
- 이메일 : 656569324@qq.com

중국 JD.com 국제관 입주기업 모집

(※ www.buykorea.or.kr에서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제 품 명 : 한국 영유아제품,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 업체정보

- 회 사 명 : Beijing Jingdong Century Trade Co., Ltd.
- 주 소 : 9F Building A, North-Star Century Center, 8 Beichen Weast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 담 당 자 : 김연
- 전 화 : +86-10-6410-6162 ext 72
- 메 일 : 714238@kotra.or.kr

☐ 내 용

- 중국 베이징 회사인 Beijing Jingdong Century Trade Co., Ltd. 에서 JD.com 국제관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수입희망품목

- 품목 : 한국 영유아제품,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 기타 요구사항 :
회사소개, 제품소개, 견적 메일로 송부 요망

KOTRA 베이징 무역관 연락처

담당자: 김연

- 주소: Suite 2201, Hyundai Motor Tower, 38 Xiaoy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 전화: +86-10-64106162 ext. 72
- 팩스: +86-10-65052310
- 이메일 : 714238@kotra.or.kr

행사 및 기타 정보 안내

러시아 모스크바 및 튜멘지역 수출상담회 참가안내

안녕하십니까?

KOTRA CIS 지역본부겸 모스크바무역관은 우리 수출기업의 대러 시장개척과 진출확대를 위해 6.2(수)~6.4(목) 기간중 ‘모스크바’와 우랄경제권 거점도시 ‘튜멘’에서 수출 및 투자진출 상담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이 높은 한국수출업체 여러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모스크바와 튜멘(Tumen)에서 개최하는 수출 상담회에 적극적인 참가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참가대상 : 유럽,중국,CIS 진출 한국수출기업과 지사화 업체중
모스크바,우랄 튜멘시장 수출 및 투자진출 관심기업

2. 행사개요

- 행사기간 : ‘15. 6.2(화)~6.4(목)
- 행사일자 및 장소

개최지역	개최일시	장소
모스크바	6.2(화) 10:00~17:00	코르스톤 호텔 상담장(잠정)
튜멘	6.4(목) 10:00~17:00	Mercure 호텔 상담장(잠정)

- 참가기업 : 전체 20개사 내외
 - * 유럽,중국,CIS 진출 한국업체,지사화업체중 시장성 검토후 최종선정
- 참가비 : 없음 (항공임,숙박비 자비 부담)
 - * 상담주선, 통역 무료지원

< 수출 및 투자 상담회 행사 일정 >

일시	일정	비고
6.1(월)* 18:00~20:00	참가업체 사전 간담회/ 만찬	모스크바

6.2(화)* 10:00~17:00	모스크바 비즈니스 상담회	코르스톤(모스크바)
6.3(수) 08:40~13:20	모스크바 출발/ 튜멘도착	Mercure 호텔 (튜멘)
14:30~15:30	호텔 도착/오찬	
15:30~18:00	시장조사 및 시내투어	
19:00~20:30	대사 주재 만찬 (잠정)	
6.4(목) 09:00~10:00	튜멘 투자설명회	Mercure 호텔
10:00~17:00	튜멘 비즈니스 상담회	상담장
6.5(금) 14:20~15:15	튜멘 출발/모스크바 도착	

*모스크바 주재업체는 튜멘지역 상담만 참가하므로 6.3일 일정부터 참가

4. 튜멘주 개요

- 면적 : 160,100 km²
- 인구 : 140만명 (튜멘70만명)
- 수도 : 튜멘 (러시아 북부유전과 최대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
- 위치 : 튜멘까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2,100KM(비행기로 2시간40분)
- 주요산업 : 원유, 가스생산, 정유및석유화학산업, 목재및농산물가공, 모피산업
- 상담유망분야: 석유가스채굴관련제품, 목재가공, 화장품, 직물, 의료장비, 식품 가공기계, 환경장비, 농산물가공, 건축자재, 선박수리/제조, 모피가공, 공작기계, 금속가공, 석유화학제품등

5. 지원내용

(모스크바)

- 현지 유망바이어 상담주선
- 통역(한-노), 차량(모스크바에서 튜멘 출발시 차량지원)

(튜멘)

- 현지 유망바이어 및 투자가 상담지원
 - 튜멘주 정부관계자와의 프로젝트 주선
- 통역, 차량지원등

(공통)

- 오,만찬 각1회등

6. 신청방법 및 기한 : 참가신청서 작성, 4.21(화)한 제출

-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요망

7. 문의처

○ 모스크바 무역관 서기원 부분부장

- 전화 : +7-495-258-1627/ 팩스 : +7-495-258-1634
- 이메일 : kwseo90@kotra.or.kr

첨부 : 1. 신청서 양식

2. 튜멘주 개황 정보 =끝=

신청서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50413/1.docx>

중국 비즈니스 포럼 카페 안내

한중FTA체결임박으로 신규 업체들의 중국진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아직까지도 본 카페를 잘 모르시는 중국 주재원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고(몇주전 청도코트라 무역관 채널을 통한MTP교육 홍보중에 알게됨),이 자리를 빌어 카페 홍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계약법 실시 직전인2007년10월에 설립된 본 카페에는 지난7년반 동안6천3백여건에 달하는 중국의 노동,세무,법무,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현장 정보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많은 회원분들도 정보공유에 동참하고 있어,명실공히,중국 실무정보에 관한 한,한국 최대 규모의 정보저수지이며,중국사업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카페에 들어오시고,일정한 요건을 거쳐 정회원이 되시면,언제든지 각종 금사항을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고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본 카페는 공익성을 띠고 있으며,개인(이평복고문)이 운영하고 있으나,코트라 청도무역관과의 네트워킹하에,노동(이평복고문),세무(최광호대표,류건화세무사),법무 및 사업정리(이택곤회계사)등 여러 전문가들과 연계되어,회원들의 각종 질문에 대응하고 있으며,회신내용은 가공정리되어 카페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술집에 돌아다니는 근거없는 정보에 의지하여 중국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중국 비즈니스포럼에 들어오셔서,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중국 사업의 난관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카페 주소: <http://cafe.naver.com/kotradalian>